영암군, 한국관광공사 SNS기자단 초청 팸투어 실시

월출산 자연경관·향토음식 활용 관광상품 SNS 홍보
타깃층 공략법 및 MZ세대 위한 콘텐츠 등 의견 나눠

영암군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가봄' SNS기자단을 초청하여 영암 관광자원을 구석구석 체험하고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영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온라인 파급효과가 큰 한국관광공사 SNS기자단을 초청하여 대표 관광지와 신규 관광자원을 방문하여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 등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SNS를 통해 영암관광을 활발하게 홍보하기 위하여 진행했다.

SNS기자단은 월출산 국립공원, 기찬묏길, 월출산 기찬랜드, 왕인박사유적지, 구림한옥마을 등 영암의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고, 다양한 향토음식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일차 투어를 마친 후 가진 간담회에서는 영암군 관광활성화 를 위하여 팸투어 참가자들의 영암 관광객 유치을 위한 타깃층 공략법 및 MZ 세대를 위한 콘텐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SNS기자단은 월출산 국립공원를 수려한 자연경관을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 등이 경쟁력을 높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참가자들은 여행하며 취재한 사진과 글을 기자단 SNS에 게시하여 영암 관광지를 생생하게 홍보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영암군을 찾아 올 수 있도록 SNS홍보를 강화하고 간담회와 팸투어를 통한 결과를 토대로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가 우리군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한국관광공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관광상품을 연계해 영암군의 관광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형 일자리 창출"…청·장년 워크숍 추진

청년 정책에 관심있는 주민 대상…9개 읍·면 순회

함평군이 지역 청·장년을 대상으로 함평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장년 워크숍을 추진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달 7일 손불면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9개 읍·면을 순회하는 청·장년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청·장년들의 글로벌 경영리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이상익 군수의 특별강의로 이루어진다.

군은 워크숍을 통해 글로컬(Global+local,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 시대에 대비,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과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민관이 함께 지역 청장년의 역량과 역할을 점검하고 이에 맞는 함평형 일자리 창출 등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청년이 돌아오는 고장, 머무르는 함평'을 만들기 위해 민선 8기는 30년 후의 함평을 바라보며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군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오는 17일 '강항의 날 선포식'과 함께 '선비 한복 모델 선발대회' 진행 예정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회장 박석무)는 오는 17일, 전라남도 대표축제인 상사화 축제기간 중 '강항의 날 선포식'을 영광 내산서원과 상사화 축제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강항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제와 상사화 축제장에서 내산서원까지 약 3㎞ 구간에 설치된 약 10개의 구덩이에 만장기를 설치하는 길놀이 행사, 강항 선생의 귀국을 기념하여 귀국장면을 연극으로 재연한 '강항 승리의 날' 행사가 진행된다. 강항의 날 선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고유한 의상인 한복을 착용한 모델을 선발하는 '선비 한복 모델 선발대회'도 내산서원과 상사화 축제 특설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항 선생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의병으로 활동하며 군량 수송과 의병 모집 책임을 맡았다. 전투 참여를 위해 통제사 이순신 장군의 진영에 합류하려 서해로 이동 중 영광 염산 논잠포에서 일본에 잡혔으나 포로생활 중에도 불굴의 투지로 맞서며, 유학(성리학, 주자학)과 제례문화, 선비복을 전수해 "일본유교의 비조"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다.

'강항의 날 선포식'및 '선비한복대회'의 행사일정과 행사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YouTube'나 '네이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대표축제인 상사화 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군, 퍼플섬에서 섬 왕새우 축제 개최

오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11일간…3년만에 개최되는 첫 수산물 축제

신안군이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 세계최우수 관광마을과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퍼플섬에서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11일간 섬 왕새우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개최되는 첫 수산물 축제로 왕새우 소비촉진 활성화와 함께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청정 갯벌에서 자란 신안 왕새우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다.

왕새우는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 예방, 피부노화 방지 등의 효능과 함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키토산이 함유된 고단백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신안 왕새우는 게르마늄과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맛과 영양면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정평이 나 있다.

신안군은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왕새우 할인 판매와 동시에 즉석에서 다양한 왕새우 요리(구이,튀김 등)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외에도 신안에서 직접 생산한 제철 맞은 농·수특산물도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신안=이덕주 기자

무안군, 추석 연휴 비상진료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

무안군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백 등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석연휴 비상진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무안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관내 병·의원 및 보건기관 40개소와 약국 19개소도 연휴기간에 운영된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원스톱 의료기관 13개소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군 보건소장은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견고히 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정된 비상진료기관과 당번약국 현황은 군 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 무안군청 당직실, 응급의료포털 E-Gen, 보건복지부콜센터 등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무안=이기성 기자